

# 옛 틀을 새 틀로 치유해 주는 집언

집언:1-9, 야고보서:5-8

정윤돈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할 드립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더욱 깊이 묵상하여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이해하게 하시며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주역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제목과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까, 말씀을 통해 힘을 얻게 하고 응답과 해답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언약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류 역사상 최고 천제가 있다면 솔로몬이라는 왕이라고 생각한다. 왜냐면, 잠언을 읽어봐도 지혜로운 말이 많이 했지만 전도서 내용을 보면 건축, 식물, 동물, 지혜, 음악, 시, 모든 면에서 뛰어난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까지 지었다. 인류 역사상 훌륭한 인물도 많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의 깊이까지 가진 지혜의 사람, 세상적인 지식, 영적인 서밋에 이른 사람은 솔로몬 밖에 없는 것 같다. 솔로몬은 3권의 책을 썼다. 아가서, 전도서, 잠언을 썼는데 아가서는 젊었을 때 사랑을 노래하는 것이고, 잠언은 가장 잘 나갔을 중년에, 전도서는 헛되다고 하는 모든 시책작용을 거치고 마지막으로 전도자로 남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다. 성공이다. 하는 거다. 이런 것을 보면 기분이 조금 나쁘다.(웃음) 다 잘하는데, 나중에 전도도 잘 하고 신앙도 좋은 사람이다. 부족한 점이 있어야 하는데, 잘못 할 때는 마음대로 잘못 하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모습을 보았을 때, 대단한 인물이다. 이것은 다 나뉘는 기도의 응답이라고 볼 수 있다. 오늘은 솔로몬이 다 적은 건 아니지만 잠언 31장의 대부분 솔로몬이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앞부분에도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시작이 된다. 잠언 기록의 목적을 보면 1-6절까지 어리석은 자도 지혜롭게 되고 지혜로운 자도 학식이 더할 것이요, 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는데, 그러나 이 내용이 굉장히 깊어서 몇 시간 강의 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우리가 전체적인 것을 하나로 축약한다면, 잠언 기록의 궁극적 목적은 ‘복음의 능력과 그리스도를 발견 하는 것이다.’ 그냥 복음이 아니고, 복음의 능력이다. 잠언에 보면 약한 자와 의로운 자,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이야기가 나온다.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 남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어리석은 자는 두루 돌아다니며 한담 한다고 한다. 복음 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참지 못한다. 이 행동이 나쁜 행동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성령, 복음의 능력이 없으면 못 참는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있기를 축원드린다. 나쁜 짓을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참고 못 이긴다. 사탄을 못 이긴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필요하다. 잠언의 모든 내용을 보면 다는 아니지만 거의 90%를 보면, ‘지혜’라는 단어가 ‘그리스도를 집어 넣은’ 내용이 매끄럽다. 그냥 지혜라고 하면 잠언이 율법 책처럼 들리는데, 전부는 아니지만 한 95%는 ‘지혜’ 혹은 ‘명철’이 들어간 자리에 ‘그리스도’를 넣으면 문장이 너무나도 매끄러워진다. 그러니 결국 잠언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책인 줄 믿으시기 바란다. 마냥 청소년 때 이 잠언을 읽다가 마음에 담기만 평생의 유익을 얻게 될 것이다.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목사님 설교에 거의 은혜를 받지 못 했다. 공과공부 시간이 힘들었다. 집사님이 준비를 하나도 안한 것이 보였다. 주일학교 설교가 끝난 후 공과공부를 하는데, 선생님이나 공과공부 책을 성령의 능력으로 주일 날 아침에 와서 깨닫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하나도 신뢰가 안 갔다. 이런데 제가 목사까지 된 것이 기적이다.(웃음) 하나님의 은혜다. 복음도 정확히 알려 주는 것도 아닌데, 전도하고 교회 가자고는 했다. 예수는 구원자, 주일은 지켜야 한다는 건 알았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복 분이라 매우 엄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체게 너무 상처가 되더라. 그러던 와중 어릴 때 잠언을 읽는데 ‘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고 했다. 그 말씀이 제 마음 속에 확 부딪히는 것이다. ‘내 아들이 아버의 교훈을 떠나지 말라.’고 나와 있다.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었다. 그 후부터는 꾸지람을 들을 때마다 “그대 내가 명철한 자가 되고 지혜로운 자가 되고, 훈계를 달게 안 받으면 짐승 같은 존재가 되는구나.” 하고 항상 떠오르는 것이다.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잠언 체질이 나온다. 읽었던 그 모습대로 되어지는 것을 체험했다. 그래서 체질이 너무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머리를 굴리면 다 보인다. 수가 다 보인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길 축원한다. 싸울 것도 없고 다 양보해도 된다. 왜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인간적인 수단을 쓸 필요가 없다고 하셨다. 램뎀트, 모든 성도들에게 잠언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체질이 되기를 축원한다. 많은 사람들이 비복음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본다. 그때마다 저는 속으로 “저분이 잠언을 어렸을 때부터 묵상했다면 저런 행동을 절대 안 했을 텐데...”하는 생각을 한다. 구체적인 행동이 거기서 보여 진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지만 행동을 비복음적으로 한다. 세상적으로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어도 성공한 사람은 모두 잠언같이 산다. 그것을 ‘일만은총’이라고 한다. 예수를 안 믿더라도 성경대로 살아가면 그 복을 받는다. 부한 것은 부지런한 것에 있다고 하는데 예수 안 믿더라도 부지런히 살고 성실히 살면 부자가 된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열심히 믿는데 공부를 안 하면 점수가 안 나온다. 어떤 신학생이 내일 시험인데 공부는 하나도 하지 않고 기도실에 가서 열심히 기도만 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시험을 보니 하나도 모르겠는 것이다.

그래서 답안지에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하고 적었다. 그러나 신학대 교수님이 ‘하나님은 100점, 너는 0점’ 하고 답변을 주셨다고 한다.(웃음) 우리도 그렇다. 구원은 받았다. 그러나 점수는 0점이다. 주일 예배는 다 빠지고 공부는 열심히 한 사람은 점수는 100점이지만 영혼은 0점이다. 우리는 두 가지가 잘 되어야 한다. 그게 영적 서밋, 기능 서밋이다. 그걸 가지고 세상 바꾸는 문화 서밋이다. 그래서 우리는 왜 잠언이 지혜롭게 변화시켜주는 능력이 있는지 묵상할 필요가 있다. 잠언에 나오는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지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읽기만 해도 그리스도가 주시는 세 가지 치유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란다. 사실 시편을 읽어도 치유가 되는데, 시편은 우리의 상한 심정, 감정을 많이 치유해준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도 치유해 주시고, 믿음도 갖게 하신다. 그런데 잠언은 이성적이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감성보다는 생각을 바꾸는 치유의 지혜를 주는 응답이라고 볼 수 있다.

## 1. 잠언에는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가득 담겨있다.

(1) 그 대표적인 말씀이 잠언 1장 7절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에이, 하나님 말씀 뻔한 이야기” 라고 이야기한다. 지옥이 존재하고 심판이 존재한다. 하나님 믿어야 한다. 인류의 끝이 있다. 안식일 주일을 지켜야 한다. 말해도 안 듣는다. 영적으로 팽이다. 미련한 것이다. 세상적으로 보면 바보같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벽부터 와서 봉사하고 주일에 와서 앉아있는 여러분은 최고의 지혜자이기 때문이다. 바보, 멍청이라고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은 진짜 똑똑하고 현명하신 분이다.(할렐루야) 예배 모르는 인생이 실재한 인생이다. 바보, 멍청이다. 가끔 생각하게 된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몰랐던데 갑갑하고 살 이유가 없었어 것이다. 그런데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살고 있고, 답답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하는데 채워지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살 때 진정으로 모든 시련 끝이고, 모든 이유와 응답을 발견하도록 오신 존재인줄 믿으시기 바란다. 우리는 그래야 자유롭고 행복해지는 것이다. 세상에 다른 많은 지식도 필요하겠지만 그것에 앞서 최우선적으로 창조주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란다.

(2) 잠언 3장 5절 말씀이다. 현대인들이 특별히 더 강하게 붙잡아야 할 말씀이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회개하지는 말씀이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 하지 않고 직장, 돈, 권력, 세상 것을 의지한다. 그게 아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신뢰할 때 모든 것이 따라오는 줄 믿으시기 바란다. 완벽한 것이 대대로 온다.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나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하셨다. 여호와께 집중할 때 하나님이 모든 지혜와 총명을 여러분에게 자손 대대까지 더 해주실 것이다. 여호와께 집중하지 못하고, 여호와만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영적인 상태가 되는 것이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믿고, 여러분의 지혜, 판단,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왜냐하면, 특히 교회 와서 더 그렇다. 선악과를 따 먹을 때,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했다. 교회에 와서 목사님은 왜 저래 하고 판단하는 것은 창세기 3장이다. 다른 곳에 서는 다 해도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 이해되지 않아도 믿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순종 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믿음을 배우는 곳이 교회이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방법을 배우는 곳이 교회이다. 머리도 좋지 않으면서 머리 굴리지 마시기 바란다. 생각 많이 하면 이상한 데가 가 있다. 교회는 기도 하는 곳이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하시기 바란다. 그러면 하나님은 질문하는 자에게는 알려주신다. 그것이 비밀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집사의 직분이 ‘비밀을 맡은 자’라고 했다. 진짜 비밀은 하나님이 가장 많이 아시고 여러분에게만 알려주신다. 그 비밀을 가진 자는 든든하다. 나중에 그것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보게 된다. 믿음의 자부심이 생기는 것이다. 그 응답이 날마다 있길 축원드린다. 3장 9절에 말씀에는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번엔 램뎀트가 첫 직장 월급을 가지고 왔다. 이 건 단순해 물질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말하는 거다. 모두가 첫 열매를 다 가지고와라 이것이 아니다. 그 자체가 근본으로 나의 가장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이다.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말하는 거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기를 바란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첫 번째, Ladies first가 아니라, GOD first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 우선주의, 제일주의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면 지금 잘못된 것이다. 영혼이 병든 상태다. 그러면 응답 받을 수 없다. 하나님도 역사할 수 없다. 잠언 3장 7절 말씀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라고 다시 말씀하고 있다. 스스로 지혜롭게 하지 말라고 했다. 겸손을 말 하는 것이다. 류복사님께서 진짜 성공하는 사람은 겸손하다고 하셨다. 별이 4개인 사람 앞에서 군대이야기를 하는데 “그런가요?” 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본인은 방위 출신인데, 별 4개 장군이 자신의 이야기를 귀 담아 듣는다고 했다. 진짜 성공한 사람은 귀담아 듣고, 겸손하다. 자신이 부족한 줄 안다. 한양대학교 병원에 입원한 김제철이라는 사람이 진짜 똑똑했는데 병들었다.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 물어보니,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병원의 교수님이 장로님이었는데 수술하기 전에 기도를 했다고 한다. “어떻게 갑자기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라고 물었더니 한양대학교 교수님 한분이 자

신을 수술하시기 전에 “기도합니다.” 하시더라. 그래서 ‘무슨 의사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어하고 이해가 안 간다고 하니. 그 의사 분이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대답하시더라. 진짜 실력자는 겸손하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저분이 이렇게 실력자이시고 겸손하신데, 저분이 믿으시는데 하나님 믿어야 하는 구나.’ 하고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잠언을 복음적으로 적용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 지혜라는 단어를 그리스도로 바꿔서 읽어보기 바란다. 예를 들어 3장 13-18절의 내용 중에서 지혜를 그리스도로 바꿔 읽어보겠다. “그리스도(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그리스도(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그리스도(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기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그리스도(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 나무라 그리스도(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를 그리스도로 바꾸면 오히려 확실한 잠언이 된다. 잠언이 이렇게 우리들의 영혼을 치유해주는 것 참 지혜로운 여호와와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있다.

**2. 우리의 마음과 부족한 생각을 치유해주는 말씀이 많이 담겨있다.**

우리의 마음, 생각을 바꿔주는 교육의 수단으로 훈계를 많이 말씀한다.

(1) 잠언 6장 23절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고 했다. 목사님과 부모님이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을 붙잡으면 여러분에게 생명의 길이 된다. 그 말씀을 붙잡으면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 제양과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교회 성도들이 요즘에는 강대상에서 훈계의 말씀을 들으면 빠져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 과거의 교회에서 메시지를 하는데 어떤 청년이 “목사님 좌우의 날선 검처럼 찌르는 말씀 같았어요.”라고 했다. 그런데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나는 기분이 좋았고 저 친구는 성공 하겠다 했는데, 나중에 목사 사모가 되었고 다락방 안에서 잘 응답받으며 살고 있다. 한 번만 성공해도 하나님이 평생 보장 해주실 줄 믿는다. 훈계의 말씀을 달게 받으면 그게 지혜로운 거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다. 가정,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다. 어떤 이상한 선생님이 말을 하더라도 그 안에 소중한 것이 있다. 어떤 친구가 직장에 취직했는데 일은 잘하고 성실한데 성격이 간간했다. 그 직장에 가서 직원에게 “저 친구 힘들죠? 간간하죠?” 라고 말했다니 그 직원이 “아니요, 배울 게 많아요.”라고 했다. 내가 볼 때 성질이 참 더러운데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나중에 보니 그 친구에게는 좋은 직원이었다. 우리가 직장을 상관을 합당하는 재미로 다니는데 그런 수준으로 다니지 말고 까다로운 자 까지도 받아들이고 그릇을 넓혀라. 그게 복음적인 체질이다.

(2) 잠언12장 1절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나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내가 이 말씀 때문에 깨졌다.

(3) 잠언 15장 5절 ‘아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려한 자이니라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이니라’

(4) 잠언 23장 13절 이 말씀을 듣고 자녀들을 때리지 말라.(웃음)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죽도록 때리는 뜻이다. 그런데 성경을 볼 때 한 쪽만 보면 안 된다. 지혜로운 자에게 말 한 마디 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에게 매를 백 대 때리는 것 보다 깊이 박힌다고 했다. 그런 램넛들이 되기를 축원드린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래, 맞아.” 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 때린다고 되는 건 아니다. 사실은 잘 안 된다. 어떤 문제 있는 청소년이 있었는데 나를 만나서 “오늘 폰대에게 뽀 30대를 맞았어요.” 라고 했다. 그런데 내가 볼 때 전혀 변화의 기미도 없어 보이고 선생님만 힘든 것이다. 워낙 그런 체질이 안 되면 맞어도 안 되고 훈계를 들어도 안 된다. 때로도 안 되고 훈계도 안 되고 협박으로 안 되는 거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 갓 난 아기 때부터 잠언을 읽어주면 체질이 된다. 램넛들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받아라. 강제로 하지 말라.

(5) 교만한 마음을 치유해야 한다.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진짜 성공한 사람은 겸손하다. 박사는 내가 모르는 게 너무나 많구나 하고 깨닫는 것을 박사라고 한다. 그 전에는 아는 척 하는데 진짜 공부하면 모르는 게 많다는 걸 알고 계속 배운다.

(6) 잠언 16장 5절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여러분은 주님 앞에 사랑 받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린다.

(7) 잠언 29장 23절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8) 우리가 가진 경제에 대해 잘못된 생각 하고 있는 것을 바꾸는 말씀이다.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다 경제의 복을 받았다. 후원을 말한다. 잠언11장 24-25절에 ‘홀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우리의 경제관과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자기의 먹고 살 것만 생각 하면 항상 어렵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이 나라를 먹여 살려야겠다 생각해야. 훌륭한 기업가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잘 믿진 못했지만 그 자세, 모양, 포부, 아까 말한 일반 은총과 그릇은 복음적이다. 원래 우리의 것이다.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드린다. 나 한 사람 때문에 이 나라가 잘 될 거야.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다 현당하고 복 받을 거야하고 믿어라.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계획을 하고 그렇게 사업하고 도전해라. 나 혼자 현장 다 해버리겠다’ 하고 사업을 짜라. 사업을 그렇게 하면 0을 몇 개 더 붙이게 된다. 어차피 돈 버는 것은 다 똑같다. 일역을 버나 십역을 버나 백역을 버나 똑같은데 오히려 더 큰 돈 벌기가 쉬워진다. 나 혼자 겨우 먹고 사는 것에 치중하지 말고 내 그릇을 깨고 틀을 깨고 그림을 새롭게 그려라.

**3. 우리들의 삶을 치유하는 사실적인 말씀들이 기록 되어있다.**

부하게 되는 가장 기초적인 원리를 우선 말씀하신다.

(1) 잠언10장 4절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손을 빨리하라는 게 아니고 삶 전체를 말하는 것이다. 잠언에 보면 정직에 대해 많이 이야기 한다. 큰 돈을 똑똑한 사람한테 맡기겠는가, 정직 한 사람에게 맡기는가. 정직하고 성실하면 나중에 똑똑한 사람보다 훨씬 일을 잘한다. 어떤 청년이 일을 하고 싶어서 왔는데 조금 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래서 “너는 서울에 올라가서 직업 훈련을 하고 공부하고 와라”하고 1년 뒤에 다시 왔는데 마침 자리가 비어 일을 시작했다. 그런데 나가지도 않고 일을 계속하니깐 나중에 경리를 하게 되고 나중에 도의원과 결혼하고 그곳에 시설장이 되었다. 정직하고 거짓말하지 않는다. 나중에 그 응답을 받는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잔머리는 아니다. 여러 분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길 바란다.

(2) 잠언 6장 6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했다. 미리 준비하는 거다. 이 말씀은 램넛들이 싫어하는 말씀일 수 있는데(웃음), 잠언 26장 14절 ‘뿔 돌짜귀를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르는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핸드폰과 함께 돈다. (웃음) 부지런한 걸 체질화해라. 당장은 되지 않아도 이것을 마음속에 새겨라. 알기만 해도 달라진다. 인정만 해도 달라진다.

(3) 또 보증을 서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잠언 17장 18절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3월 전 전에 이야기다.

(4) 잠언10장 19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5) 잠언 17장 28절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느니라.’ 말을 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남을 살리는 이야기는 많이 해야 한다. 그런데 험담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간섭하는 말을 하면 다 싫어한다. 그런데 또 반대로 입을 다무는 사람들은 말을 안 하고 속으로 악한 것을 피한다고 했다. 정말 중요한 때는 참고 안하면서 기도하며 침묵하는 거랑 속으로 음침한 이야기를 생각하며 침묵하는 건 다르다. 말을 할 때도 아로 생긴 금쟁반에 두르는 수경수글과도 같다고 했다. 꼭 해야 할 말은 적당한 말은 사람을 살린다. 그러한 지혜로운 자가 되시길 축원드린다.

**오늘 말씀 드린 것 외에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깊이 묵상하고 실천해야 할 지혜의 말씀들이 담겨져 있다.**

잠언은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 의로운 자와 악한 자를 대비하고 있다. 여러분은 지혜로운 자로 의로운 자로 인정받기 축원드린다. 결국 참된 지혜를 얻지 못하면 결국 사탄이 원하는 악한 길을 갈 수 밖에 없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말씀을 마무리 하며 오늘은 전 도자의 삶 21가지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이 시대에 될 수 있는가 적용하면서 말씀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

1.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할 수 있다. 어리석은 사탄은 예수님을 죽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버리셨다. 그래서 그리스도, 십자가는 어리석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란다. 감람산에서 기도했다. 문제 앞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게 가장 지혜다. 마가다락방에 있는 그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위해서 가치를 아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순교하는 자세로 모였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모인 곳이 마가다락방이다. 그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린다.
2.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하면 그 속에서 무한한 지혜가 생겨나게 될 것이다.
3. 사람들이 성공을 못하는 아이큐가 낮아서도 아니고, 지식이 부족해서도 아니다. 당연하고 필요하고 절대적인 것에 집중하지 못한 게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집중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4. 우리가 복음과 그리스도와 전도로 일심, 전심, 지속한다면 하늘로부터 오는 놀라운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전체를 살리는 일이 된다.
5. 오직, 유일성, 재창조이다. 우리들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성령이 함께하신다는 증거다. 그 사람은 아무도 모방 할 수 없는 유일성과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번에 유승환 집사님과 박현주 장로님 팀이 가서 바누아투에 가서 빗물 식수화 시설을 설치하였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니 아이디어가 나온다. 한 번을 통해서 주변에 14 섬나라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란다. 오직을 하면 유일성, 재창조가 따라온다.
6. 하나님 자녀가 해야 할 것은 24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 때 그 사람은 슬로몬보다 뛰어난 25시의 지혜를 얻고 그 열매는 영원히 남게 될 것이다.
7. 끝으로 이번 한 주는 잠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잘못 된 옛 틀로 각인, 뿌리, 체질화된 부분들이 완전히 새 틀로 바뀌는 것을 체험하는 그러한 말씀성취를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축원드린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구원 받은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정말로 지혜롭게 이 땅에 살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잠언의 소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잠언을 성취하는 체질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로 237개국 현장을 귀한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복음적 지혜로 치유하고 복음화 시키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